칼 럼

임 성 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꿈을 가져야 희망이 안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절망의 끝에 서있다고도 한다. 요즘사람들이 말이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 원인은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일수 있다. 실업문제, 고용불안문제, 직장 내 스트레스문제, 인사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절망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취업중인 경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박봉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직장상사로부터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어려운 삶을 견뎌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난관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병리적 현상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심화되면 우리사회가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드시 치료되어져야 한다. 이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력이다. 아무리 힘든 불랙홀 속에 함몰됐다하더라도 극복해 내고자하는 의지만 있으면 희망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간단없는 자기 자신의 전향적인 노력에서 비롯된다.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문인으로 추앙받는 루쉰은 이런 말을 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다. 땅위에 길을 놓는 것은 인간이다. 그 길을 각자가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노력 또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잖은가.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어떠한 불행도 막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

결국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권력, 물질 등 외부적 조건의 많고 적음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아를 어떤 방향으로 형성해 가느냐에 따라 형성된다는 말이다.

만약 외부조건만이 행복을 결정짓는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최고의 권력과 재력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최적의 삶을 영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은가. 그런 조건들과 삶의 질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이는 수심에 가득 차있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불행 속을 걷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다. 물론 외부조건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내적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획득해가는 것만큼 이상의 갈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는 내적인 욕구를 다스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 외적조건을 개선해 가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도움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것만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구질구질한 것들은 털어버리자. 변화를 꾀해보자. 구조조정을 하자. 그러기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말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버스 · 택시기사 처우 개선해야

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과로 사망률이 전체 노동자 평균치와 비교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다. 사납금 제도 등의 영향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교대근무도 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과로 버스나 택시는 노동자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과로 사망자 수(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과로사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과로 사망자 수)이 0.24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사 비율이 크게 높았다. 표준산업분류상 운수 · 창고 · 통신업의 과로사 만인율은 0.74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3.1배 수준이었다. 운수 · 창고 · 통신업에는 택시 · 경차량 운수업, 여객운수업(버스), 화물운수, 운수부대서비업, 통신업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택시 · 경차량 운수업의 과로 사망 만인율은 1.93명, 여객운수업 1.21명이었다. 전체 노동자 평균 사망 만인율과 비교해 5~8배 높은 것이다.

택시와 버스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빈번한 건 박봉 탓에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법인 소속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제도로 인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게 일반적이고, 밤낮으로 맞교대 근무한다.

노선버스도 올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전까지 하루 18~20시간씩 운행한 뒤 다음날 쉬는 격일제나 16~18시간씩 이틀 연속 근무한 뒤 사흘째 쉬는 복격일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운수업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버스와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대중교통 수단의 종아인 이 분야 종사자들이 과로가 아닌 쾌적한 건강상태에서 도로를 질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건강 위한 안전한 산행과 예방법

지난 9월에는 빈번한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입은 농가 및 주택, 상업은 피해복구에 전념을 다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된 업무로 인해 지친피로를 힐링할 수 있는 등산의 계절이 다가오게 된다. 단풍색이 물들며 산행을 위하여 가을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벌써부터 등산객이 산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쫓아내기 위하여 웰빙시대를 강조하며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신체활동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 또는 등산을 찾게 된다.

하지만 모든 운동에 대하여서는 준비 운동 및 사고 예방을 숙지하고 안전에 대하여 안일한 생각을 버리며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산행에 있어서는 등산을 하기 전에 숙지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로, 모든 운동은 과도하게 해서는 안되며 무리한 산행을 지양해야 한다. 산행을 높이하게 되면 지대가 높아질수록 평지와 달리 체감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오랜 산행을 할 경우에는 체온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 종류의 옷은 피하고 땀이 나지 않도록 가볍게 등산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산행을 진행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기에 열량이 높은 초콜릿 등을 챙기는 것도 추천하고 산행 시에도 주변을 숙지하고 조심해야 하며, 특히 하산 시 저녁시간 쯤에는 날이 어두워져 등산로를 찾기 힘들 수 있으며 내리막길에 주의하고 산행 시 숙지했던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며 하산하여야 한다.

길을 잃을 시 신속하게 119에 전화를 하여 인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김태현 / 영암119안전센터 소방교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 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 장·발행인 김 평 호
편 집 인·편 집 국 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